

일본의 양계업

산란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토회

이바라기현(茨城県)을 중심으로 발생한 약독바이러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개요, 경위, 일련의 방역조치 내용 및 해당방역조치가 2006년 4월말로 완료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번 발생에 있어 처리수수는 합계 총 578만수이고, 그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한 처분수수는 336만수(38개 농장, 농장감시대상 농장 5개 포함), 농장감시대상의 항체양성반응 닭의 처리수수는 약 242만수(8개 농장)이었다.

감염경로구명에 대해서는 10월 하순 이후 이바라기현에서 확인된 32~41 항목의 검사결과, 역학조사결과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일부 농장에서는 항체 바이러스의 검출결과 부자연한 면이 있고, 또한 분리된 바이러스를 이용한 가금류에의 접종시험 결과, 이 바이러스의 감염성은 닭에서 높고 오리에서는 없어, 이 바이러스는 닭에 대하여 항체유도성능역이 높고, 또한 항체 지속기간이 비교적 길다는 점 등이 밝혀졌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수집된 정보의 분석·검토, 바이러스의 정상분석, 발생농장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요인의 분석(사례연구)등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차단방역을 위하여 발생 국에서의 가금류 수입을 중지하고 초생추 수입에 있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침입위험이 높지 않은 범위에서 검역조치에 대한 정보수집과 검토를 추진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없고 전국적으로 애완용이나 평가가금에 백신을 접종하는 네덜란드에 대해서는 더욱 상세한 정보의 수집과 검토를 추진하기로 하였다(개인 통신원).



윤 병 선

한경대 친환경농림축산물인증센터 전임연구원
농학박사

고토(後藤) 양계 규슈(九州)영업소 직매점 개장

규슈영업소는 순 일본산의 적색계란 「단풍」과 교배종인 벚꽃 「벚꽃란(핑크란)」을 낳는 「벚꽃」의 병아리를 판매하고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이 회사의 창업정신이나 경영정신, 사시(社是)를 실천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지동판매기 3대를 설치하여 계란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직판점의 주민뿐만 아니라 근처 주민들도 많이 구입하여 계란 직매점 규슈영업소를 3월 18일 개장하였다.

생산자로부터 집하한 「벚꽃계란」, 「단풍계란」을 중심으로 조미된 계란, 온천계란, 계란스프 등의 계란가공품, 적색토종닭햄, 살짝 구운 비엔나 닭고기, 닭고기가공육 등의 계육가공품, 계란시리즈, 계란밥, 계란구이 원료 등 계란 소비촉진상품도 함께 진열되어 판매되고 있어 닭 관련 상품의 전문판매점으로 되어 있다. 개장기념행사는 신규 닭고기가공육 무료시식, 찐 계란 무료시식, 탁구공잡기 등의 이벤트가 실시되어 물건을 사는 것 뿐 만 아니라 이벤트를 즐기는 손님도 많았다. 판매장 점장은 「직매점의 테마인 『오늘 낳은 계란을 오늘 파는 매장』을 실천하기 위해서 신선한 계란을 고집하여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기분 좋은 장보기가 되도록 만드는 매장을 만들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계명신문 발췌).



육 계

추천으로 1만명에게 닭고기 도시락 제공

일본햄(주)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행락철에 맞추어 닭고기 도시락 선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햄은 대상상품(울트라 닭고기- 뼈 부착 튀김)에 붙어 있는 응모권을 우편엽서에 붙여 응모하는 것으로 울트라 닭고기와 함께 울트라 닭고기 캐릭터 그려 넣은 도시락과 젓가락 세트를 1만 명에게 더블찬스로 당첨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추천으로 1만명에게 캐릭터를 선물한다.

대상상품 울트라 닭고기 금년 2월 신발매한 인기 품목의 하나이다. 캠페인은 울트라 닭고기 팬의 확대를 목적으로 실시하며 한 사람이 몇 번이라도 응모가 가능하다. 기간은 2006년 7월31일까지 우체국소인이 찍혀 있으면 유효하다(계육협회 발췌).

농림수산업관 일본닭 개발 지시

조류인플루엔자의 세계적인 발병에 따라 원종계나 종계의 수입이 금지되는 경우의 영향이 걱정되는 가운데 5월9일 나카가와(中川) 농림수산업 장관은 각료회의 이후의 기자회견에서「일본에서의 우량품종 개발」을 지시할 것을 생각한다는 뜻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현재 일본에서 외국종의 점유율은 육계 99%, 산란계 93%로 압도적이다. 일본산 병아리는 육계에서 효고(兵庫)목장의 「하리마(はりま)」 이외에 몇 개의 지방에서 개발된 재래닭이 있고 산란계는 오카자키(岡崎)목장의 「노링크로스(ノリンクロス)」와 민간회사인 고토(後藤)부화장(주)의 「단풍」, 「벚꽃」등으로 아주 적다.

농림수산업성에서는 일본에서 닭을 개발하는 의의는 세계적인 육종회사에 의한 품종의 과점화로 육종소재 확보해줄 필요가 있고, 어떠한 원인으로 일본으로의 병아리 공급이 안 되는 경우에 양계산업이 존립될 수 없게 되는 점을 들어, 구체적인 닭 품종의 개량증식 목표를 세우고 육종개량에 노력하고 있다고 하여 새로운 예산을 준비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계명신문 발췌).

조류인플루엔자 보조기금용 적립금액 증액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생산자의 경제적인 손실을 보증하는 「보조기금」의 가입은 2005년 12월 현재 산란계, 육계, 종계를 합해서 3,879호에 2억 6천272만수에 달한다. 기금 발족 당시에는 약 100만수 정도 발생을 가정하였으나, 2005년 6월 약 600만수 이상이 발생에 따라 재원고갈이 문제가 되었었다.

2006년도에는 새로운 3개년 계약의 개시 년도로서 가입을 재계약한다. 일본양계협회에서는 일본에서 대량발생을 경험하여 내용을 일부 개정하도록 하였다. 해외와 일본에서의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기금 자체의 조성금액을 증액하고 있어 생산자도 이에 따라 동일금액으로 적립하는 구조는 변하지 않으나, 위생적인 사양관리를 촉진하는 관점에서 사육 위생관리기준의 준수를 가입요건에 추가하였다(계명신문 발췌).